

# 상상력과 창의력의 장(場) '2004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04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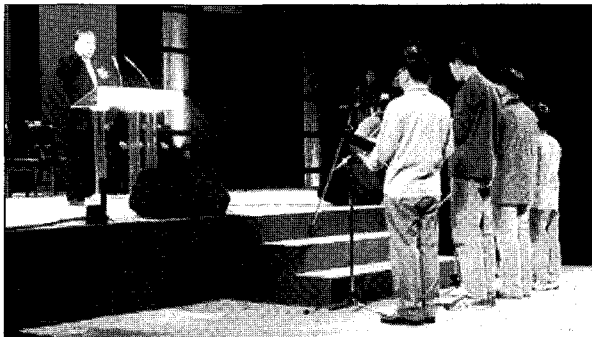
이 대회는 특허청과 삼성전자, 한국학교발명협회가 공동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종합 창의성 경진대회로서, 5~7명의 학생들이 한팀을 이루어 주어진 과제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여주는 과학·수학·음악·미술·공작기능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창의성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1차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 총 82개 팀 5백33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경연을 벌였다. 각 팀은 3개의 장기과제(별첨1 참조)중 한 종목을 선택하여 참가, 대회장에서 주어지는 즉석과제를 팀원들간의 협동심과 창의성을 발휘해 해결해 나갔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창의력 퀴즈대회', '신나는 미술 배우기', '게임왕을 찾아라', '에어로켓 경연', '디지털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등 다양한 창의력 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한편 특허청은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미국 DINI 대회의 선행 대회로 운영되어 문제 난이도와 참가절차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우리 나라 초·중·고 등 각급학교 수준에 맞는 문제를 발굴하고 참가절차를 간소화한 국내 대회를 개발하여 참여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 대회에 참가한 '윤석을



▲ 학생들의 협동심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마련된 이번 '2004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각 부문의 학생 대표들이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받아라' 팀의 장정임 학생은 '이번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되었다'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기뻐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금상 수상팀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이, 은상 수상팀에게는 특허청장상 등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는데 영예의 금상은 각 종목별로 STONE(낙성고), 얼음물(은평초), N.I.T(김해 경원고), Wish Peace(장전중), 미리내(서울고), 창조(구룡중), Space eye(서울 갈현초)에게 돌아갔다.

각 부문 금상 수상팀은 금년 5월 미국 테네시주립대학에서 개최되는 제25회 DINI대회(세계청소년창조성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 인비넷, '미성년 전자상거래 방법' BM 특허 획득

대구지역 교육용 콘텐츠 개발업체인 인비넷(대표 김상현 <http://www.inbenet.com>)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및 미성년자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이 BM특허는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교육이나 게임, 아바타 등 온라인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도록 하고 콘텐츠를 구입한 뒤 사용 내역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카드결제 안되기 때문에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ARS를 이용, 부모들이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었지

만 인비넷의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면 아이들의 구매형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 유용하다.

김상현 사장은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면서도 부모의 동의 하에 자유롭게 온라인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며 '현재 온라인 사용자의 60~70%를 차지하는 10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건전하게 온라인 소비층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비넷은 이번 비즈니스모델이 달 말 개설 예정인 피아노 교육 사이트 피아피닷컴(<http://www.piapi.com>)과 현재 운영중인 미술사이트(<http://www.hikiddy.com>)에 적용할 계획이다.

## 물과 기름 섞는 방법 미국 특허 받다

호주의 한 과학자가 오랜 숙설과 달리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호주 국립대학 리처드 파셀리 교수가 발견한 방법은 물 속에 녹아 있는 기체를 제거한 뒤 기름을 넣는 것으로 물과 기름이 섞이는 방법에 대해 미국 특허를 받았다.

그는 '물 속에 녹아 있는, 주로 산소와 질소로 이뤄진 가스를 제거하자 물과 기름이 저절로 섞이면서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 불가사리 콩나물 개발 성공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14일 (주)정제주와 공동으로 '해적 생물' 불가사리를 천연 칼슘자원으로 활용한 '칼슘강화 기능성 콩나물' 생산 기술개발에 성공, 발명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불가사리에 함유된 천연 칼슘(25.1%)을 물에 녹인 수용액에 콩을 불리고 생육시켜 칼슘강화 콩나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불가사리 칼슘화합물로 콩나물을 생육시킨 결과 콩나물의 길이와 비율이 높고, 잔뿌리가 적어 상품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인체에 필요한 칼슘을 콩나물을 통해 섭취할 수 있어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불가사리 퇴치와 콩 재배농가 및 콩나물 생산업체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간편

## 와인, 제대로 고르려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와인 한잔은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을 선물한다. 이때 마시는 와인을 고르기로 와인을 잘 아는 사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와인은 위스키나 브랜디 등 이미 한번 끓여서 만든 증류수와 달리 병 속에서 계속 숙성하는 살아있는 양조주다. 때문에 제대로 된 와인을 고르기 위해서는 브랜드와 빈티지, 가격, 보관 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어떤 종류의 와인을 구입할 지 결정하라

내가 원하는 와인이 레드인지 화이트인지, 혹은 뉴월드(캘리포니아, 칠레, 호주 등) 와인인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할 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선택의 폭을 줄여야 와인숍에서 점원의 도움을 받기가 쉬워진다.

만약 초보자라면 너무 비싼 와인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처음 와인을 접하는 사람이 잘못 선택하면 실망감으로 와인과 영영 멀어질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취향에 맞는 와인을 제대로 선택하면 초보자에서 마니아로, 또 전문가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초보자에게는 저렴한 가격대로 과일 향이 풍부하고 약간 달콤한 맛을 가진 화이트 와인을 추천한다.

와인 보관 상태가 좋은 매장에서 구입하자

손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너무 강한 조명을 쬐고 있지는 않은지, 실내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춥지는 않은지, 와인병은 코르크를 적실만큼 눕혀 있는지 살펴보자.

와인은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너무 빨리 숙성돼 변질되거나 넘칠 수 있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숙성이 멈춰 버리거나 주석산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 병이 오랜 시간 세워져 있었다면 코르크가 마르면서 그 사이로 미생물이 침투할 확률이 높다. 와인이 코르크를 적서 적당한 양의 산소만을 투과하도록 해야 한다.

조언을 구하라

와인에 대한 다채로운 정보를 다방면으로 습득하고 있는 주위 사람이나 점원에게 자신의 취향(레드 혹은 화이트인지, 드라이한 지, 달콤한 지, 탄닌이 많은 지 등을 원하는 것)을 알려 도움을 받거나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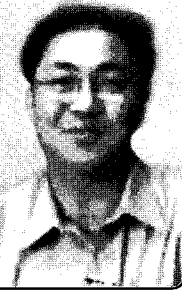


▲ 와인은 잔의 3분의 2정도 따른다. 공간을 남기는 것은 남은 공간을 통해 공기와 향이 어우러져 그 맛이 더 깊어지고, 마실 때 와인의 향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발명가와 발명에 관심있는 여성들의 회원 가입을 기다립니다.  
 • 홈페이지 [www.inventor.or.kr](http://www.inventor.or.kr)  
 • 사무국 (02)539-2710

| 기고문 |

###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차이점



백건수 (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 결과 패소자는 특허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의상 특허심판원을 1심, 특허법원을 2심이라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특허법원이 1심, 대법원이 2심인 2심제가 된다. 특허법원이 1심이 된다는 점을 기초하면 특허심판원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나 이유를 특허법원에서 새롭게 제출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된다.

물론 특허법원이 1심이라고 하여 심판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특허법원의 사건은 심판원의 심결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심판원에 먼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에 대한 불복으로서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없다. 이는 일반 고등법원에 항소하여야 한다.

심판원과 특허법원이 다른 점을 나열하면 심판원은 대개 모든 심판을 서면심리로 하지만 특허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 해당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특허법원에서 변론을 한다고 하여도 산업재산권의 성격상 서면에 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법원에서는 변론을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와 판사 간에 대화가 가능하다. 자신의 특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재판 진행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판사에게 주장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준다.

심판원의 판단주체는 심판관이고 이들은 일반 공무원이다. 특허법원의 판단주체는 판사이다.

간혹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 '이들 두 기관 중에서 누가 더 심리를 잘하고, 누가 더 판단 기준을 높게 보는가'라고. 이에 대한 답변은 정말 힘들다. 굳이 답변하면 두 기관 모두 산업재산권 분쟁 판단에 있어서 전문기관이므로 판단 기준이나 심리 깊이에 대해선 차이가 없지만, 심판원은 보다 기술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특허법원의 경우에는 논리성을 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므로 이것은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

심판원으로부터 심결문을 송달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무효심판 등에 있어서 심판원에서는 특허명세서를 정정할 기회가 있지만,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정정할 기회가 없음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2.4조 확정

중소기업청은 총 2.4조원 규모의 2004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신청을 접수했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등 총 8개 자금 2.4조원으로 운영되며 지원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금리는 크게 4.9%

또는 5.9%로 구분되어 있고 시설자금은 8년(3년거치), 기타자금은 5년(2년 거치) 또는 3년(1년거치) 등 장기간으로 지원되며 부문별 지원금액을 보면 구조개선사업자금 1조2천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3천억원, 소상공인창업자금 2천5백억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7백50억원, 수출금융지원자금 6백50억원, 협동화사업자금 1천8백억원, 입지지원사업 2백억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2천8백억원 등이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백대 기술과제 정보 공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조영화)은 차세대 성장 동력의 10대 산업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1백대 핵심기술 개발과제에 대한 기술 및 시장정보(R&BD)를 홈페이지(<http://www.kisti.re.kr>)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술 정보는 디지털 TV, 디스플레이, 지능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1백개 과제다.

KISTI는 올해 말까지 1백대 핵심기술 과제 정보 외에도 인증, 표준, 업체, 특허지도(PM), 기술로드맵 등 시장정보 및 기술분석 정보를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인터넷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증가

적산전력량계(積算電力量計)의 기술이 원격검침 전력량계 기술로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허출원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전력량계 전체 출원현황은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검침 전력량계의 출원현황은 2000년을 기점으로 '99년 이전 대비 2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흔히 전기계량기라고 불리는 적산전력량계는 각 가정과 산업시설 등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먼저 제1세대 적산전력량계라고 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전력량계는 회전하는 원판의 회전량에 따라 소비전력이 숫자로 표시되는 방식인데 지금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계적으로 전력량을 감지하는 아날로그

방식은 수치의 부정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높은 정밀도를 가진 제2세대 적산전력량계인 디지털 적산전력량계로 바뀌었으나 고가로 인하여 보급이 잘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검침원들이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함으로써 방법 문제와 인력 및 시간 낭비로 이어져 결국 이러한 제반 비용은 수용가의 요금으로 고스란히 부담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최근 인터넷 관련기술의 발전으로 검침원이 일일이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검침을 할 수 있는 제3세대 적산전력량계인 원격검침기능을 가진 적산전력량계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차세대 적산전력량계로서는 각 가정의 여러 가지 계량기(수도, 온수, 가스, 전력)를 동시에 검침할 수 있고, 각종 보안장치(방법, 화재, 지문인식센서 등)를 제어 및 감시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Beauty Tip

## 여드름, 겨울철에 더 주의하자!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철에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겨울철에 더 주의해야 한다. 겨울에는 모공이 닫혀있는데다 차고 건조한 날씨로 피지와 각질이 피부에 두껍게 쌓인다. 이러한 불순물이 모공 안에서 세균과 작용해 뾰루지가 되고 통증을 동반하는 성인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겨울철 성인 여드름을 예방하려면 일주일에 2회 가량 클렌징 크림으로 각질을 녹이고 스팀타월로 얼굴을 감쌌다가 닦아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는데도 여드름이 계속 그대로라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여드름 치료법으로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스킨스케일링 등이 많이 이용됐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이 각광받고 있다.

▶ 여드름이 심할 때 따뜻한 물수건으로 하루에 5-6회 얼굴을 문질러 주면 모공이 확대되어 진정 효과를 준다.



### [기사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